

# 3주 넘긴 국회 공백... '검찰개혁' 놓고 원구성 협상 또 결렬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갈등  
작년 국회 국민의힘 맡기로 합의  
예정된 원내수석 간 회동 취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진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 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수출 문 열렸다"... 원전산업 육성 예고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방문  
"정책 방향만큼 방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기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며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만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서 탄탄히 구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한올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와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황식(앞줄 왼쪽 네번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앞줄 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 공부방장인 김기현(앞줄 왼쪽 세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1호 공부 모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與 공부모임 '새미래'...尹 정부 성공 과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강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만든 당내 국회의원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공부 모임을 두고 계파 정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새미래가 출범한 것이다. 새미래는 우려 불식 차원에서 대한민국 미래에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첫 모임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새미래 가입 의원 38명, 비회원 8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참석한 것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與 서해 공무원 피격 TF, 해경 찾아 질타

해양경찰청장 만나 사건 진상 청취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사건과 이후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 진상조사 TF(서해 피격 TF)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 같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서해 피격 TF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 진상에 대해 청취했다. TF에

는 하 위원장과 함께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공무원 A씨 행동에 대해 '월북'이라고 추정할 점을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월북한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착용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TF 위원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했던 점 ▲월북의 사표 현 정황 확인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A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추정했던 증거도 밝혔다. /최영훈 기자

## 민주당, 경제특위·정치보복위 동시 출격

경제위기 등 선제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경제특위)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정치보복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오늘 중요한 2개 기구가 발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경제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금 더 거시적인 경제정책전문기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제위기대응특위가 앞으로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 경제 위기 대응할 지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기구로 발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 정책통인 김태연 전 원내대표가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는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에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